우암학원 창학 71주년
광주의 명문대학교 광주·전남 취업률 1위!!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70 SINCE 1952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756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4월 13일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광주시장 후보

강기정

주기환

장연주

문현철

김주업

전남지사 후보

김영록

이정현

민점기

광주시장 5명·전남지사 3명 등록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
시도당 선대위 출범식 본선 체제
광주교육감 5파전·전남은 3파전

6·1 지방선거에 나설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은 12일 일제히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

또한, 각 정당 시·도당은 이날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선대위 출범식을 갖는 등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며 본선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와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연주, 진보당 김주업, 기본소득당 문현철 후보 등 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남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 등 3명이 등록했다.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강기정 민주당 후보는 "시민으로부터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겠다"면서 "좋은 정책으로 지역발전 동력을 만들고, '경청'을 통한 새로운 선거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늘려 달라, 활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당하고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는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는 정당이나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광주를 위해서 최고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며 "집권여당 후보인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광주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기 위해 역대급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차별과 혐오, 배제와 낙인이 없는 사회와 모두를 위한 광주시정을 펼쳐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는 "민주당 일당 독점을 깨기 위한 돌파구가 되겠다"면서 "시민을 주인으로 떠받드는 시민중심 행정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역대 최연소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선 문현철 기본소득당 후보는 "문화도시·인권도시 광주에 걸맞는 시장 선거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 등 3명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김영록 민주당 후보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호남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면서 "이번 선거는 대선 패배의 상실감을 딛고 호남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여는 시발점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의 4년은 전남 대도약의 시간으로, 도민들과 함께 '대도약, 전남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수평적 도정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전남 도민들은 자유를 위해 너무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 왔다"면서 "자유를 쟁취하는 게 아닌, 자유를 누려야하는 21세기에는 무조건 특정 정당만 지지할 게 아니라, 선택의 자유, 선택의 행복을 누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치의 전남을, 삶의 전남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전남의 유권자들께서 27년간 도지사 일당 독점을 깨고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선거 혁명을 일으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점기 진보당 전남지사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막고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도 바로잡겠다"면서 "텅빈 농촌을 아이들 울음소리로 채우고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없도록 새 일자리와 희망을 채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5명 가운데 4명이 첫날 등록했다. 전남도교육감에는 장석웅, 김대중, 김동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12일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날 시교육감에는 이정선, 박혜자, 이정재, 정성홍 후보가 차례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동완 후보는 13일 후보등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교육감선거는 5파전으로 출발하게될 전망이다.

박혜자 후보가 '이정선 후보와 반(反) 이정선 후보 구도'를 만들고자 '민주진보후보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의 반응이 현재까지는 적극적이지 않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정성홍 후보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교육의 가치·철학·정책에 대한 어떠한 공유와 제안도 없이 단지 '보수교육감' 탄생을 막아야 하기에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것은 정치인다운 선거 공학적 접근"이라며 "광주시민을 믿고 당당하게 한길을 가겠다"고 단일화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남에서는 현 교육감인 장석웅 후보를 비롯해 김대중, 김동환 후보가 등록서류를 제출해 '3파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장석웅 후보는 "교사가 되고 싶어 사범대학에 간 이래 지금까지 오직 아이들의 미래와 전남교육을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헌신해 왔다"며 "37년 동안 현장 교사와 다양한 교육개혁, 교육 혁신운동, 교육 시민운동 경험을 통해 교육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고 재선 승리를 자신했다.

김대중 후보도 후보 등록 후 전남교육 대전환에 나서겠다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김 후보는 "전남교육 대전환을 통해 위기의 전남을 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김동환 후보는 이날 공식 후보등록을 마친 후 "새로운 희망인 제가 전남교육을 젊고 새롭게 바꾸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5·18진상조사위 2년여간 허송세월 발포명령자·행불자 등 진실 묻히나

5차 조사 보고도 큰 성과 없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가 출범 이후 5번째로 5·18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5·18연구자들 사이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조사결과라는 박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년여간 100여명의 조사관 등 인력을 투입했는데도 이른바 국민적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최고위 5·18 발포명령자', '행방불명자' 등에 관한 진실 규명은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서울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조사결과와 향후 조사 방향을 발표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이날 ▲발포명령과 체계의 조사 및 주요 경과와 현황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 등 8가지 사안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5·18 연구자, 5·18 관련자들 사이에선 "보고회 발표 내용이 1988년 국회의 광주 청문회 등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것은 없다"는 인색한 평가가 나왔다.

5·18진상조사위가 이날 성과로 꼽은 '1980년 5월 20일 밤 광주역 집단발포 명령자'와 관련해서도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었다'는 것은 지난 1995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었다.

'계엄군 성폭력 사건' 조사의 경우 피해자 한 사례(계엄군에 의한 임신, 출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했을 뿐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

5·18진상조사위 안팎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구를 거부한 인물들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동행명령권이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5·18진상조사위가 조사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날선 비판도 나오고 있다. 2년간 2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한 것 치고는 성과가 초라하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을 우려해서 인지 5·18진상조사위는 이날 대국민 보고회에서 스스로 성과가 미흡한 점을 인정하며 "(전두환·노태우 등) 당사자 사망, (장세동 당시 특전사 작전참모,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핵심인사의 조사 비협조와 코로나 19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권 교체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 핵심 당사자의 사망, 조사 기간 만료 임박 등 5·18진상조사위를 둘러싼 상황을 고려하면 법정 최대 활동기한인 내년 말까지 '핵심 의혹 규명'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5·18 연구자는 "2년이 넘는 조사 기간을 고려하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인지 일부 자극적인 사건 위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남은 조사 기간 등을 생각한다면 하사관 등 부사관부터 장성까지 상향식으로 진행됐던 조사 방식을 하향식으로 바꾸는 등 조사 방식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